

철학자들이 보는 죽음

강 성 루*

목 차

I. 들어가면서	VIII. 하이데거가 보는 죽음의 의미
II.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과 죽음	IX. 인도의 염세주의
III.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사생관(死生觀)	X. 불교에서의 사생관
IV. 영혼불멸설의 단초	XI. 공자가 보는 사후의 세계
V. 스토아 학자들의 죽음관	XII. 장자의 사생관
VI. 플로티노스의 죽음관	XIII. 나오면서
VII. 칸트에서의 생명 및 인격존중의 윤리	

I. 들어가면서

오늘날 도처에서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빼앗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하찮은 일(?)로 자기 자신의 생명마저 해치는 자들이 있다. 오직 이념과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인종이나 피부색,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심지어 사리사욕이나 분노로 인하여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다. 과연 이래도 되는가?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도 괜찮은 것인가?

무(無)의 상태에서 유(有)으로, 비존재에서 존재으로 인간존재가 옮겨지는 순간, 그것은 필연적으로 다시 무와 비존재의 상태를 전제한다. 쉽게 말해, 인간에게 삶이 주어지는 순간부터 그는 이미 죽음을 그 안에 잉태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존재’가 무엇인지, 그 ‘생명’은 무엇이며 또 그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를 위해 동서양의 철학

* 광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논문접수일 : 2020. 5. 9., 논문심사일 : 2020. 5. 11., 게재확정일 : 2020. 6. 10.

자들이 주장한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II.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과 죽음

1. 원자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은 다음과 같다. 이 세계는 존재자(존재하는 모든 것)와 그 존재자가 채우고 있는 텅 빈 공간(무)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존재는 아주 작고도 수많은 알맹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다는 의미에서, 불가분의 것(Atomon), 즉 원자(原子, Atom)라 불린다. “물체는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하나는 어떠한 힘으로도 파괴할 수 없는 원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들로 이루어진 복합체이다.”¹⁾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그것을 구성한 원자들이 결합하여 생겨난 것이고, 따라서 그것들이 흩어지면 없어지는 셈이 된다. 원자의 결합으로 사물이 생겨나고, 원자의 분해로 사물이 없어진다. 그래서 원자야말로 모든 사물의 근본 물질이 된다.²⁾

사물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신체와 영혼 역시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신체는 어차피 ‘물질’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 데 반하여, 영혼마저 원자로 되어 있다는 주장에서 우리는 그의 강렬한 유물론적 경향을 엿볼 수 있다. 데모크리토스에 의하면, 사실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사물이 어느 정도씩은 이 영성(靈性) 원자를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인간의 경우 그것을 비교적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물체에 비해 영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뿐이다.

2. 죽음이란?

따라서 애초에 인간이 생겨난 것 자체가 원자의 결합에 의한 것임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그를 형성했던 원자들이 흩어진다는 것에 다를 아니다. 육체를 구성했던 원자가 흩어지면 육체가 없어지는 것이고, 정신을 구성했던 원자가 흩어지면 정신 역시 사라져 버린다. 그리하여 인간에게 사후(死後)의 세계란 없다. 사람이 죽으면 한갓 무로 돌아갈 뿐, 천국이나 지옥 또는 극락 같은 곳은 없다는 뜻이다. “죽은 후에는 상도, 벌도 받을 수 없다.”³⁾ 이와 관련하여, 루크레

1) 문계석 학위논문, 루크레티우스 원자론의 기본원리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원, 1987년, 33쪽.

2) 강성률, 『유물론과 쾌락주의의 상관 관계에 대한 연구』, 초등도덕교육 제56집, 2017.

티우스(로마의 시인·철학자. 원자설에 대한 철학시를 남김)는 “우리는 죽음과 절대로 만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죽음이 없으며, 죽음이 올 때에는 우리가 이미 살아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우리가 죽은 다음 단지 무로 돌아간다는 입장에서는 ‘살아 있는 동안에나마 즐겁게 살자’는 주장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 데모크리토스의 유물론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보면, 쾌락주의 윤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왜 에피쿠로스(쾌락주의자)가 데모크리토스의 형이상학을 기초로 삼았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다.

III.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사생관(死生觀)

1. 소크라테스의 죽음

소크라테스는 청년들을 부패하게 하고 국가의 신 대신에 새로운 신을 믿는다고 하는, 당치도 않은 죄목으로 고소를 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인 이유 외에 실제로는 소크라테스의 정치적 기반이 허물어졌다는 사실이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가 승리하게 되자 아테네에는 스파르타식의 귀족정치, 과두정치가 수립되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바로 이 귀족주의적 정파에 이념적 무기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또 한 차례의 정부전복에 의해 민주주의자들이 권좌에 올라서게 됨으로써 그는 누명을 쓰고 고소를 당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밖에 참주들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그들에게 증오감을 심어 주었다는 원인도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재판정에서 누구에게 사과하거나 애원하지 않고, 오히려 시민들과 배심원들을 꾸짖다시피 하며 정의와 진리에의 길을 설파하였다.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우리는 죽음을 재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죽음은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첫째, 죽음이 완전히 무(無)로 돌아가는 것일 경우... 모든 감각이 없어지고 꿈도 꾸지 않을 만큼 깊은 잠과 같을 것인즉, 그보다 더 즐거운 밤이 어디 있겠는가? 둘째로, 죽음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의 여행길과 같은 것이라면... 생전의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으니 이 또한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제 떠날

3) 에피쿠로스, 『에피쿠로스의 쾌락의 철학』, 조정옥 엮음, 동천사, 서울, 1997, 127p.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사형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살기 위하여... 그러나 우리 앞의 어느 쪽에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신 외에는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이후, 사형이 확정되자 그는 피신을 권유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아테네 법률에 의하여 잘 살아왔는데, 나에게 불리해졌다고 하여 국법을 어기는 것은 비겁한 일이지 않은가?”라고 하며, 단호히 거절하였다. 바로 이것이 ‘악법도 법이다’라고 주장했다는 대목이다.

감옥 안에서 소크라테스는 크리톤(소크라테스의 부유한 친구. 소크라테스에게 탈옥을 권유함)에게 독약을 빨리 가져오도록 재촉한다. 독이 든 인삼주의 잔을 관수에게서 받아들고, 그는 태연하게 기도를 올리고 나서 조용히 마셔버린다.

2. 소크라테스의 사생관(死生觀)

소크라테스에 있어서 죽음이란 육체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것인 바, 지혜를 추구하는 참된 철학자라면 육체적인 것으로부터 마땅히 해방되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육체는 영혼을 방해하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가령 우리의 영혼이 육체적 욕망이나 감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진리를 제대로 포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육체를 먹여 살리기 위해 비진리를 이야기해야 할 때도 있다. 더구나 육체에서 파생된 자녀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으며, 육체적 병으로 인한 괴로움은 또 얼마나 큰가? 그리하여 죽음이 다가올 때 회피하는 사람은 지혜를 사랑하는 자(愛智者), 즉 철학자가 아니고 고통과 죄투성이의 육체를 사랑하는 자가 되고 만다.

이러한 주장을 듣고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묻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살이라도 해서 죽음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자살은 죄악’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신에 대한 관계는 짐승들의 인간에 대한 관계와 마찬가지로 주종(主從)관계인데, 종이 주인의 허락도 없이 자살해 버린다면 그 주인이 무척이나 노여워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르는 가축들이 우리의 허락도 없이 자살해 버렸을 때 우리가 속상해할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신의 허락도 없이 자살해 버린다면 신 역시 속상해할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자살은 신에 대한 반역이고, 따라서 그것은 범죄행위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신이 부를 때가 있다. 우리는 신이 부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의 허락이 있을 때 기꺼이 떠나야 한다. 만일 그때에도 삶에 집착한다면,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이러한 평소의 사생관(死生觀)으로 미루어 소크라테스 자신이 재판정에 섰을 때, 이미 그는 신의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또한 그 후로 (탈옥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은 이를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IV. 영혼불멸설의 단초

1. 피타고라스의 영혼불멸설

피타고라스(수학자, 철학자)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영혼에 관한 학설이다. 그는 남부 이탈리아의 크로톤에서 교단을 조직하였다. 일종의 비밀 종교단체인 이 교단은 영혼윤회설에 입각한 인과응보를 생활신조로 삼아, 신자들에게 엄격한 금욕과 규율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인간이나 동물로의 화신(化身)을 통하여 혼이 계속 살아남는다는 영혼불멸설 및 윤회설에 입각하여 ‘동물의 살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금기를 지켰다. 그 이유로, 자기가 먹는 동물의 살 속에 자기 할머니의 혼이 깃들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까닭이다. 인도 윤회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는 이 사상은 이후 플라톤과 기독교 사상에서 되살아나게 된다.

2. 플라톤의 상기설

플라톤의 저서 『국가론』의 끝 부분에 에르 신화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 음과 같다. 우리의 혼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불별이 내리쬐는 긴 들판을 건너야 한다. 물도 없는 그 들판이 다 끝나갈 무렵 강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 강 이름은 레테(Lethe)강으로서 그 강물을 마시자마자 우리의 혼은 과거의 기억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만다.

모든 혼이 육신으로 다시 탄생할 무렵 어쩔 수 없이 마시게 되는 이 강물로 인하여, 우리는 전생(前生)에 대한 모든 기억을 망각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후천적인 교육이나 경험에 의하여 잊어버렸던 전생의 기억을 되살리게 된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배운다는 것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생에서 알고 있었던 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일 뿐이다. 지식은 곧 상기(想起)인 것이다. 희랍어로 진리를 aletheia라고 하는데, a는

부정을 나타내는 접두사인 까닭에, alethcia는 곧 ‘비망각상태’를 의미한다. 즉, 이 용어는 바로 lethe 신화와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이 상기설은 플라톤의 영혼불멸설을 증명하는 데에도 이용된다. 즉, 상기설을 받아들인다면, 그 자체로서 우리의 영혼이 전생에서도 존속하였다는 증거가 되며, 따라서 육체가 없어지는 후생(내세)에서도 존속할 것이라는 유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V. 스토아 학자들의 죽음관

1. 스토아학파의 학설

스토아학파는 모든 것을 물질로 보는 유물론적 세계관을 취하고 있었다. 인간의 육체나 영혼, 신은 말할 것도 없고 사물의 성질이나 덕, 정욕까지도 물체라는 것이다. 또한 헤라클레이토스와 마찬가지로 만물의 근본 원소를 불로 보았다. 불이 이 세계의 물질에 힘을 넣어주는 로고스⁴⁾이며,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곧 신과 같다. 신으로서의 불은 또한 정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우주는 이성적인 것이 되어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 우주가 질서 있는 것은 그 안에 로고스가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이성 가운데에도 로고스가 들어 있다. 로고스가 이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인 것처럼, 이성은 인간을 지배하는 법칙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성인 이성에 충실한 생활이야말로 자연에 순응하는 생활이다. 여기에서 ‘자연에 순응하여 살라’고 하는 스토아학파의 모토가 나온다.

스토아학파의 윤리설을 우리는 보통 금욕주의라고 부른다. 참된 행복이란 쾌락에서가 아니라, 의무를 준수하고 또한 극기하고 단념하는 데서 생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대로 인간의 본성은 이성이기 때문에 이성에 따라 사는 것이 덕이며, 그것으로 인하여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나 스토아학파에 의하면, 덕과 부덕의 구별은 단순히 밖으로 드러나는 인간의 행위에 있다가보다도, 그의 정신적 태도에 달려 있다. 그리하여 건강이나 재산, 생명, 명예, 권력, 병, 가난 등은 선악을 구별할 수 없는 ‘중립적인 것(adiaphora)’에

4) 로고스(logos): 파토스(pathos, 충동, 정열)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인간 행위가 따라야 할 준칙, 혹은 이 준칙을 인식하고 이를 따르는 분별과 이성을 의미함. 기독교에서는 세계 창조에서의 신의 섭리, 창조질서를 의미함.

불과하다. 현자의 진정한 선은 선택되는 사물에 있지 않고 선택하는 지혜 중에만 있다. 그것은 마치 훈련 중인 사수(射手)의 목적이 과녁 자체가 아니라, 사수 자신의 숙련인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그 결과에 있지 않고, 바른 행위를 행하고자 하는 의무의식과 내면적인 심정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아디아포라 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크든 작든, 그러한 것들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 완전히 무관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수양을 쌓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수양을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외부적인 것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apatheia)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외부사건으로부터 독립해 있으면서 걱정을 지배하는 가운데, 인간의 진정한 자유가 성립한다. 그리하여 아파테이아를 유지하는 현자는 진실로 행복하고 자유롭고 부유하다.

그러나 이 부동심이란 저돌적인 정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강인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스토아 학자들은 이 부동심을 얻기 위해 생사(生死)까지도 가볍게 보았으며, 심지어 숨을 멈추거나 의지력에 의해서 자살한 자도 적지 않았다. 즉, 살아남아서 아디아포라 적인 것(가치중립적인 것)에 지배되기보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편이 낫다고 보았던 것이다.

2. 실제로 자살한 학자들

이러한 맥락에서, 제논과 클레안테스(기원전 331/6년-233/2년): 아소스 출신의 스토아 학자)는 자살하였다. 특히 클레안테스는 의지가 강하여 스스로 끓어 죽었다.

후기에 들어와서 세네카(사도행전의 18장 12절에 나오는 ‘갈리오’는 그의 동생임)는 제자인 네로 황제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다. 로마의 5대 황제였던 네로는 처음에는 좋은 정치를 베풀었으나 성질이 거칠어지면서 스승인 세네카와 어머니, 황후를 죽였다. 또 로마에 불을 질러 그 죄를 기독교도들에게 떠넘김으로써 대학살을 자행하였다. 그의 혹독한 공포정치는 급기야 전국 각 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하였고, 네로 자신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만다.

네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는 지혜에 대한 사랑을 주장하였으나 결국 네로의 의심을 사서 사형선고를 받게 된다. 처음에 동맥을 끊었으나 평소애 조식(粗食-검소한 음식만 먹음) 하였던 관계로 피가 나지 않자, 허벅다리와 전체 몸의 동맥을 끊

었다. 그래도 죽지 않았고 독약에도 효과가 없었으며 손발을 묶었으나 얼음처럼 차져서 피가 나지 않았다. 드디어 뜨거운 물에 집어넣었는데, 이때 세네카는 하인에게 “이 물은 주피터 신(그리스에서의 제우스신에 해당)의 거룩한 물”이라고 말하면서 죽었다고 한다. 다른 설에는, 또 그가 당시의 자살 방법대로 손발의 핏줄을 통해 독약을 흘려 넣은 뒤, 한증탕의 열기 속에서 죽어갔다고도 한다.

모든 스토아 학자들의 공통점은 엄격한 금욕주의에 따라 외부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적인 덕, 즉 부동심을 얻는 데 뼈를 깎는 노력을 하였다는 데에 있다. 그리하여 때로는 무서우리만큼 강한 인내력과 자제력을 발휘하였던 것이다.

VI. 플로티노스의 죽음관

1. 생일을 저주하다

신플라톤학파⁵⁾의 철학자 플로티노스는 ‘자신이 육체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몹시 부끄럽게 여겼다. 먼저 그는 자신의 출생, 부모, 고향에 대해 한 번도 말해 본 적이 없고, 영혼이 육체에 들어온 날인 출생일조차도 비밀로 하였다.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에게는 ‘심히 유감스러운 사건’, 즉 생일을 축하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초상화를 절대 그리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당시의 가장 유명한 화가를 그의 강의실에 몰래 들여보내서 스승의 모습을 기억시킨 다음, 다른 장소에서 초상화를 그리게 하였을 정도이다.

플로티노스는 자신의 육체를 극도로 멸시하였다. 병에 걸려도 약 먹기를 거부하였고, 위경련이 일어났을 때도 그 처방인 위세척을 거절하였다. 음식의 양을 너무 많이 줄였고, 준비해둔 빵 한 조각을 먹는 것조차 자주 잊어버렸다. 불면증까지 얻게 된 플로티노스는 앓아누운 채 야위어 갔다. 나이가 들어서도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으며, 손발이 굵아 터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자, 제자들과 교제하는 일조차도 힘들어졌다. 그리하여 결국 그의 추종자들마저 점점 그를 멀리하고 말았다.

2. 육체는 비천한 것

그렇다면, 플로티노스가 이처럼 육체를 학대한 까닭은 무엇일까? 그에 의하면,

5) 신플라톤학파: 로마제국 몰락기(3~6세기)의 그리스계 철학의 마지막 학파. 유출설(流出說)을 통하여 물질세계를 최저의 단계로 보고, 신비적인 체험, 엑스타시스를 강조하였다.

물질이란 정신이나 영혼에 비해 형이하학적인 것으로서, 모든 악의 근원이다. 따라서 일종의 물질에 지나지 않는 육체 역시 영혼에 비해 한없이 낮고 비천한 것, 극복해야 할 어떤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육체를 위해 먹고 마시는 일, 육체가 생긴 날을 기념하는 일, 육체를 그려 보관하는 일 등은 그에게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서기 3세기 무렵에 활동했던 희랍의 철학자 플로티노스는 망아(忘我, 엑스타시스)의 경지를 추구하였다. 즉, 육체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깨끗케 하여 모든 생각을 끊어버리는 상태에서, 신과 직접 만나고자 했던 것이다. 그 스스로 신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플로티노스는 마술이 미치는 것을 직접 피부를 통하여 느낄 수 있었으며, 또한 그럴 때면 그의 사지(四肢)가 마치 돈주머니가 닫히는 것처럼 오므라들었다고 한다.

플로티노스는 불우한 이웃들을 도와주고 불쌍한 어린이들을 돌봐주었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아무 욕심이 없이 수면과 음식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또한 결혼을 하지도 않았다. 그는 네 번이나 신과의 황홀한 엑스타시스를 체험했다고 하여, 서양 신비주의의 시조로 일컬어지고 있다. 그가 죽을 때, “이제 나는 내 안에 있는 신적인 것이 우주 안에 있는 신적인 것 속으로 들어가도록 애쓰려 한다.”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 그러자 그 순간 한 마리의 뱀이 담 틈바구니로 사라져 버렸다. 이 모습을 본 그의 제자들은 플로티노스의 죽음을 ‘불멸의 영혼이 육체의 속박을 벗어던지고 해방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VII. 칸트에서의 생명 및 인격존중의 윤리

1. 자신에 대한 의무

칸트는 『실천 이성 비판』에서 ‘어떻게 하여 도덕이 성립하는가?’에 대해 그 근원을 따져 물었다. 그러나 『도덕 형이상학 원론』의 <덕행론>에서는 각 개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를 밝히고 있다. 칸트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가 있다.

첫째는 자기 보존의 의무인데,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몸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는 물론, 몸의 일부를 스스로 자르는 따위의 행동은 모두 범죄에 속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뜻으로, 공자는 “신체발부(身體髮膚)는 수지부모(受之父母)라, 불감훼상(不敢毀傷)함이 효지사야(孝之始也)라.” 『효

경(孝經)』⁶⁾고 하였다. 즉, “내 몸과 피부와 터럭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감히 헐어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니라.”라는 뜻이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살기가 힘들다고, 분하고 억울하다 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는 분명 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손가락을 자른다거나 몸의 어떤 부분에 문신(文身)을 넣는 행위 역시, (칸트의 기준에 따르면) 좋은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칸트는 우리가 어떤 특별한 기호품이나 식품을 지나치게 많이 먹고 마시거나 함부로 사용하여, 스스로 마취 상태에 빠지는 것 역시 범죄에 속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기준에서 보면, 예컨대 술(알코올) 중독이나 담배(니코틴) 중독, 마약 복용 등은 모두 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뷔페에서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행위는 어디에 해당할까? 이 역시 하루 중 시도 때도 없이 커피를 마시는 일처럼, 피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

둘째, 우리 모두는 진실성 또는 자존(自尊)의 태도를 지켜야 한다. 거짓말을 하거나 핑계를 대는 일, 비굴함이나 실제보다 스스로를 낮추어 보는 일 등은 모두 피해야 하는 태도인 것이다. 이를 역으로 적용해보면, 우리는 친구나 이웃에게 비굴을 강요한다거나 거짓을 말하도록 해서도 안 된다는 뜻이 되겠다. 셋째는 양심에 대한 것이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바, 그것이 곧 양심에 대한 의무라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는 그것을 피해야 한다.

2. 타인에 대한 의무

다음으로,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가 있다. 첫째, 사랑의 의무. 우리는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자선과 감사, 동정을 베풀어야 한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돕고, 위기에 놓인 사람을 보면 구해내야 한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땅히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인간을 미워하는 마음과 질투, 배은(背恩-은혜를 배반하는 일),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고약한 마음씨 등을 가져서는 안 된다. “사촌이 눈물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은 속담으로 그쳐야 한다. 다른 사람이 잘되는 것을 축하해줄

6) 『효경(孝經)』: 기원전 430년경에 만들어진 책, 공자 혹은 제자인 증삼과 그 문인들이 지은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전국시대에 들어와 증삼학과 문인들이 엮은 것으로 추정됨.

지연정, 시기하거나 질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불행한 일이 나 슬픔을 당하면, 진심으로 슬퍼하며 위로해주어야 한다.

둘째, 존경의 의무. 인간은 그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따라,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존중받아 마땅하다. 하나의 인격이 지니는 가치는 우주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비방, 헐뜯거나 멸시해서는 안 되고, 무조건적으로 존경해야 한다.

이밖에 칸트가 강조한 덕목에는 불임성, 수다스러움, 공손함 또는 손님 접대와 같은 사교상의 예절 등이 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웃으며 말을 건네고, 친절하게 안내하며,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대접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다.

VIII. 하이데거가 보는 죽음의 의미

1. 인간 실존(현존재)란?

실존(Existenz)이라고 해석되는 현존재(現存在)⁷⁾는 첫째, 세계 안의 존재이다. 그러나 이것은 공간적인 의미에서가 아니고, 모든 현존재의 근본구조를 뜻한다. 현존재는 자기에게만 고유한 장소에 던져져 있는데, 바로 이 투여성이야말로 그의 근본구조에 해당한다. 현존재는 자기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 세계 안에 던져진 채, 세상일에 골몰한다. 기분, 이해, 언변 등은 이것을 나타내는 단어들이다.

둘째, 현존재는 염려(Sorge)이다. 인간은 다만 존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를 실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자기의 현존재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사물이나 다른 사람 등에 관심이 쏠리기도 하지만, 본래의 관심은 언제나 자기의 고유한 존재양식으로 향하게 마련이다.

셋째, 현존재란 죽음으로 향한 존재이다. 죽음 앞에 나설 때, 현존재는 자신이 결국 시간임을 체험한다. 시시각각 그에게 다가오는 죽음은 인간이 결국 순간을

7) 현존재(現存在): 독일어로는 Dasein이라고 하는데, 이는 “그곳에 있는” 또는 “현존하는”을 의미한다. 하이데거는 이 용어를 인간존재에만 적용하는데, 그 의미는 죽음이라는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오히려 자신의 삶을 결단하고 비본래성으로부터 본래성으로 돌아감을 뜻한다. 죽음을 향한 존재인 인간실존이 그 불안을 ‘죽음 앞에서의 결단’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극복해 낸다는 것이다.

살다 가는 존재임을 실감하게 한다. 그러나 이 죽음은 밖으로부터 현존재에게 다가온다기보다는, 처음부터 그에게 붙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바, 인간 역시 이 세상에 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이미 죽음을 잉태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무화(無化)되는 상태 앞에서 불안을 느낀다. 인간의 불안은 그 존재 전체가 스스로의 궤도상 실을 가져오는 급박한 심정으로부터 유래한다.

2. 죽음의 의미

그러나 한편 절대적 한계점으로서의 죽음을 바로 본다는 것은 현존재만이 갖는, 의미심장하고 긴박한 문제이기도 하다. 만일 우리가 수명을 무한하게 늘려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긴박하거나 중요한 것으로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인간이 시간이라는 지평선 안에서 찰나를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야말로 그로 하여금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각성하게 만든다. 인간은 언젠가 그에게 다가올 죽음을 ‘앞서 취함(先取)’으로써, 자기의 본래적이고 고유한 삶을 자유롭고도 책임감 있게 이끌어갈 수 있다. 이제 죽음은 무작정 거부하고 부정해야 할 저주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현존재의 삶을 유일하고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계기들을 살펴보면 과거는 현재로부터 파악될 수 있고, 현재는 미래로부터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하이데거는 미래의 우위를 주장한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행위하는 적극적인 기투(企投)의 삶이 요구되는 것이다.

죽음을 외면한 사람은 비본래적이고 무의미한 것에 몰두함으로써 일상적인 현존재, 이른바 ‘세상 사람’(das Man)의 위치로 전락하고 만다. 오직 죽음을 선회한 현존재만이 일상적인 비본래성으로부터 본래성을 회복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죽음에 대한 ‘선구적 결의(先驅的 決意)’를 통하여 현존재로 바뀌어지며, 이 현존재만이 타락한 일상인⁸⁾으로부터 본래적인 자기에게로 되돌아가 삶을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꾸려갈 수 있는 것이다.

8) 일상인(日常人, das Mann-세상 사람): 자신의 본래적 사명 및 삶의 의의를 깨닫고 미래를 향해 스스로의 삶을 내던지는 현존재(現存在, Dasein)와 구별되는 의미에서, 보통 평범하게 삶을 꾸려 가는 사람. 아침에 일어나 식사하고 신문 읽다가 출근하고 잡담하다가 퇴근하여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는, 평범하고 소시민적인 군상(群像)들을 일컫는다. 하이데거는 이를 스스로의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따라서 본래성으로부터 타락한 인간으로 규정한다.

IX. 인도의 염세주의

1. 염세주의와 윤회

『우파니샤드』(크샤트리아 족의 철학사상을 나타내는 경전)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진 적이 없지만, 그 전체적인 경향은 매우 염세적(厭世的)이다. “뼈와 가죽과 힘줄과 골수(骨髓·땃속, 땃골)와 살과 종자와 피와 점액(粘液)과 눈물과 눈곱과 대소변과 담즙(膽汁·소화액, 쓸개물)으로 이루어진 악취를 풍기는, 핵(核)도 없는 몸집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그 어떤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윤회와 해탈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과연 죽은 후의 인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마치 유충(幼蟲·애벌레)이 잎사귀의 끝에까지 기어 올라가고 나면 다시 또 하나의 잎사귀에 달라붙어서 그쪽으로 넘어가듯이, 영혼이란 것도 현재의 육체를 뿌리치고 나면 또 다른 시초(처음)를 향해 움직여감으로써 마침내는 그편으로 아예 옮겨가버리고 만다. 그런데 내세의 운명은 현세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좌우된다. 선을 행한 자는 선인으로 태어날 것이고, 악을 행한 자는 악인으로 태어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야그나발키야가 주장한, 그 유명한 윤회(輪廻·몸이 없어지더라도 영혼은 다른 육체 혹은 물질에 옮겨 다시 태어남) 사상이다.

그러나 인간은 끝없는 윤회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끊임없는 순환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이것이 해탈(解脫·열반, 니르바나)에 관한 인도인들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 해탈에 도달할 수 있는가? 이를 위해서는 모든 탐욕적 행동을 멈추고, 삶에 대한 욕망을 극복해야 한다. 여기에 지식과 달관이 다시 결들여져야 하는데, 오직 무상(無常·모든 것이 늘 변할 뿐, 일정하지 않음)의 의미를 깨달은 자만이 그러한 경지에 들어설 수 있다.

2. 자살의 용인·자이나교의 창시자

마하비라로 알려져 있는 자이나교의 창시자는 기원전 599년 혹은 549년에 부유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는 죽음 후에 영원히 사는 것을 오히려 저주스럽게 여기고, 따라서 자살을 허용하는 종파에 속해 있었다. 그들은 심지어 자살을 바람직스럽다고 보는 교리에 따라 스스로 굶어 죽고 말았다. 이와 같은 일을

눈여겨 보아온 마하비라는 현실 세계에서 모든 기쁨을 포기하고, 금욕주의자로서 일생을 보냈다. 그리고 72년이라는 방랑 생활을 끝맺으면서, 마침내 하나의 종교운동을 창시하였던 것이다.

X. 불교에서의 사생관

1. 열두 가지의 단계-연기

석가모니는 해탈을 목적으로 하여 집을 나섰고,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정신을 모아 수도에 매진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현상이 시간적·공간적 인과 관계에 의하여 일어남을 깨달은 것이 연기설이고, 이것을 다시 열두 개로 나누어 설명한 것이 십이(十二) 연기설이다.

그렇다면 12 인연이란 무엇 무엇일까? 여기에서는 윤회하며 고통 받는 중생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 죽음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과정을 열두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먼저 모든 중생이 근본적인 어리석음(無明), 어둠 속에 빠져있는 단계가 있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발동하는(行) 과정이 있으며, 그 다음으로 무명의 단계에서 행해졌던 데 대한 업보가 어머니 태 안에서 부쳐지는 단계(識)가 있다. 이어서 땅, 물, 불, 바람(地水火風)의 네 가지와 수상행식(수受-감각, 상相-상상, 행行-마음의 작용, 식識-의식)의 네 가지가 한데 어울려 정신과 육체가 만들어지는 명색(名色)의 단계가 뒤따르고, 눈, 귀, 코, 혀, 몸, 뜻의 여섯 가지 감각기관(六入)을 통하여 빛과 소리, 냄새와 맛, 감촉과 법을 받아들이는 단계가 있으며, 그 다음으로 우리의 몸이 밖의 여러 가지 사물을 접촉(觸)하는 단계가 있다.

뒤를 이어 인생의 희로애락을 달게 받아들이는 단계(受), 괴로운 것을 피하고 사랑스러운 것을 취하는 본능적인 욕망이 발동하는 일(愛)의 단계가 있으며, 자기를 내세워 사람을 취(取)하는 단계가 있다. 그리고 애(愛)와 취(取)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씨앗을 장만하는 유(有)의 단계를 지나, 직접 몸을 입고 살아가는 삶(生)의 단계, 그리고 늙어서 죽어가는 단계(老死) 등이 뒤를 따른다.

2. 죽어서 가는 곳

불교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결국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윤회를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윤회란 어떤 상태인가? 윤회란 영원히 죽지 않은 채 각자가 지은 선악 업보에 따라 지옥, 아귀(餓鬼), 축생(畜生), 인(人), 천(天), 수라(修羅) 등의 여섯 가지의 서로 다른 세계에, 각기 달리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지옥은 화를 잘 내는 중생이 태어나는 곳이고, 아귀는 탐욕을 부리는 중생이 태어나는 장소이며, 축생은 어리석은 중생이 태어나는 곳이다. 결국 이 세 곳은 악한 중생들이 태어나는 곳에 해당하는 셈이다. 반면에 인(人)은 바른 마음을 가진 중생이, 천(天)은 선한 중생이, 수라는 시기·질투·교만을 저지르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중생이 태어나는 곳이다.

이처럼 비교적 좋은 곳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성현들의 가르침을 본받아 계율을 잘 지키고, 악행을 피하고, 선행을 많이 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좋은 곳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윤회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누릴만한 복이 다 하면 결국 다시 타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인간이 영원한 윤회를 벗고 생사를 초월할 수 있을까? 그를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혜.계.정 등 3학(三學)을 잘 닦아 깨닫는 자, 즉 부처⁹⁾가 되어야 한다.

XI. 공자가 보는 사후의 세계

1. 인의 개념

仁(어짐)은 공자 철학의 핵심 개념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인(仁)을 말한 경우가 있었으나, 대개는 사람의 순종하거나 온화한 성질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쳤다. 그런데 공자에서의 인이란 하늘의 사상에서 나온 것으로, 사람의 모든 덕을 총괄한 개념이 된다. 공자야말로 인을 인생의 각 방면에 적용하여 그 원리로 제시한 최초의 인물이다. 그러나 인이 무엇이나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공자 자신도 때와 장소,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르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는 세 가지 관점에서, 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2. 공자의 관심은 이 세상이었다.

첫째, 인이란 인간 중심의 사상이다. 인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인간이

9) 붓다(buddha): 부처(깨달은 자, 覺者)의 원말. 부다, 즉 석가모니를 가리킴. 궁극적인 진리를 깨달은 사람. 우주의 본성이나 참모습을 깨달은 사람. 모든 번뇌를 소멸한 사람을 의미.

되게 하려는 휴머니즘에 다름아니다. 논어에 보면, 공자는 계로(季路)가 귀신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묻자, “인간을 섬기는 일도 다 못하는데, 어떻게 귀신을 섬기겠느냐(未能事人, 焉能事鬼-미능사인 언능사귀)?”고 되묻고 있다. 둘째, 인은 진실함과 성실성에 그 바탕을 두어야 한다.

셋째, 인의 경지는 끊임없는 자기 노력에 의하여 달성된다. 인이란 사리사욕에 빠지기 쉬운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것(克己復禮)이다. 욕정에 빠진 육신을 죽이고 인을 이루기 위해서는 즉, 살신성인(殺身成仁)하기 위해서는 투철하고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보듯, 공자 철학의 특성은 인간과 그의 실천적 생활에 모든 관심을 기울인다는 데 있다. 공자가 이상으로 삼은 인간 역시 현세 도피적이거나 금욕주의적인 성인(聖人)이 아니고, 세계와 사회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모든 일에 절도를 지킬 줄 아는 명석한 판단력의 소유자, 즉 현자(賢者, 군자)였다. 공자는 점점 쇠퇴해가는 조국 노나라의 실태를 한탄하면서, 덕과 지식을 겸비한 신진 엘리트가 현실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제후국의 정치를 내부로부터 개혁하고, 나라의 기초를 튼튼히 하며, 또한 백성들의 복리를 증진시켜 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 때문에 공자가 생각하는 군자 역시 외적인 형식과 내적인 곧은 마음이 서로 일치하여 완전히 조화를 이루는 인간을 말한다. 즉, 밖으로는 세상의 법과 예절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안으로는 도덕법칙에 충실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군자인 것이다.

XII. 장자의 사생관

1. 만물일체론

장자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사물이 서로 얹히고 뭉쳐서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만물일체론(萬物一體論)을 내세운다. 모든 사물은 전체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또 어떠한 개별적 변화도 전체적 질서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장자가 죽어갈 때, 그의 제자들은 스승의 매장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고 있었다. 그러자 장자는 “나는 천지(天地)를 관으로 삼고, 해와 달을 벗으로 삼으며, 별들을 보석으로 삼고, 만물을 휴대품으로 삼으니 모든 장구는 갖추어진 셈이다. 여기에 무엇을 더 좋게 하겠느냐?” 하였다. 이에 제자들이 “관이 없으면, 까마귀나 독수리 떼들이 뜯을까 봐 걱정됩니다.”고 하자, 장자는 다시 말하기를 “노천(露天-한데)에 버리는 것은 까마귀나 독수리 떼에게 뜯어먹도록 내어주는 것

이며, 땅에다 묻는 것은 개미 떼나 땅강아지가 먹도록 주는 것이니, 이 둘이 무엇이 다르겠느냐? 이것은 마치 이쪽의 식량을 빼앗아 저쪽에 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아니냐?”라고 하였다.

2. 삶과 죽음은 하나

장자에 의하면, 삶과 죽음도 모양만 다를 뿐, 본질에 있어서는 똑같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러한 이치를 모르기가 일쑤이다. 우리 모두는 무(無)를 머리로 삼고, 삶을 등골로 알며, 죽음을 꿈무니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 어느 날 장자의 아내가 죽어 헤시가 문병을 왔다. 그런데 정작 장자 자신은 물동이를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은가? 헤시가 그 까닭을 묻자, “그는 본래 삶도 형체도 없었고, 그림자조차 없었지 않은가? 이제 그녀도 죽었으니, 이것은 춘하추동의 변화와 같은 것이다. 그녀는 아마 한 칸의 거실 안에서 단잠을 자고 있겠지. 내가 처음에는 소리 내어 울다가 생각하니, 가소롭기 짝이 없네.” 하고 대답하였다. 이것은 비관과 낙관을 한꺼번에 융화시킨 일종의 달관(達觀)주의에 다름아니다.

3. 생명 존중의 윤리

그럼에도 장자는 생명 존중의 윤리를 주장한다. 백이¹⁰⁾는 명예를 위해 수양산에서 굶어 죽었고, 도척¹¹⁾은 이익을 좇다가 동릉산 위에서 처형을 당했다. 이 두 사람이 비록 죽은 원인은 다르지만, 목숨을 해치고 본성을 상하게 한 점에서는 같다. 그러므로 어찌 백이만 옳고 도척을 잘못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생명을 잘 지키는 것보다 더 위대한 도덕은 없다.

XIII. 나오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동서양의 철학자들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데모크리토스는 ‘인간에게 사후(死後)의 세계란 없다. 사람이 죽으면 한갓 무로 돌아갈 뿐, 천국이나 지옥 또는 극락 같은 곳은 없다.’고 주장하는데, 소

10) 백이(伯夷): 중국 은나라 때의 처사. 동생 숙제와 함께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먹고 살다가 죽음.

11) 도척: 춘추시대의 큰 도둑. 일당 9천 명과 떼 지어 다니며 도둑질을 함.

크라테스는 죽음이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 하나라고 말한다. 그 가운데 죽음을 통하여 ‘생전의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하고 있다. 내세를 기대하는 듯한 발언과 함께 자살을 ‘신에 대한 반역,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신플라톤학파에서는 육체를 경멸하고 스토아 학자들은 부동심을 얻기 위해 생사(生死)까지도 가볍게 보았던 데 반하여, 칸트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뿐만 아니라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일조차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하이데거는 인간은 ‘시간’이라는 지평선 안에서 찰나를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죽음을 ‘앞서 취함(先取)’으로써, 자기의 본래적이고 고유한 삶을 자유롭고도 책임감 있게 이끌어갈 수 있다고 말한다. 하이데거에 있어서 죽음은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현존재의 삶을 유일하고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동양의 공자는 죽음보다 삶에 집중하였으며, 장자는 삶과 죽음이 모양만 다를 뿐, 본질에 있어서는 똑같다고 말한다.

이제 이 작은 단상(斷想)을 마무리하면서 오늘날 확산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라는 애초의 질문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 동서양의 철학자들 사상을 살펴보면, 극소수를 빼고 죽음을 가볍게 여긴 경우는 없었다. 더구나 어떤 이유에서건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도 된다는 윤리 도덕은 없었다. 자살을 용인하는 학파는 그 영향력이 크지 않았으며, 그러한 철학이 나오게 된 과정 또한 매우 비논리적임을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필자는 소크라테스의 사고에 매우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인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신에 대한 일종의 반역, 그러므로 그것은 죄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그 신이 언젠가 부를 때가 있다. 그때에는 미련없이 떠나야 한다. 그때에도 떠나지 않으려 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참고문헌

강성률, 저서 『2500년간의 고독과 자유』(개정판), 형설출판사, 2005.

강성률, 저서 『철학의 세계』(개정판), 형설출판사, 2020.

강성률, 저서 『청소년을 위한 동양철학사』, 평단문화사, 2009.

강성률, 저서 『청소년을 위한 서양철학사』, 평단문화사, 2008.

- 강성률, 저서 『철학 스캔들』, 평단, 2010.
- 강성률, 저서 『위대한 철학자들은 철학적으로 살았을까?』, 평단, 2011.
- 강성률, 논문 『유물론과 쾌락주의의 상관 관계에 대한 연구』, 초등도덕교육 제56집, 2017.
- 강태권 외, 『동양의 고전을 읽는다』, 휴머니스트, 2006.
- 공상철, 『중국, 중국인 그리고 중국문화』, 다락원, 2001.
- 곽철환, 『시공불교사전』, 시공사, 2003.
- 문계석 학위논문, 『루크레티우스 원자론의 기본원리에 관한 연구』, 충남대대학원, 1987년, 33쪽.
- 석인해, 『장자』, 일신서적, 1991.
- 에피쿠로스, 『에피쿠로스의 쾌락의 철학』, 조정옥 엮음, 동천사, 서울, 1997, 127p.
- 영남철학회, 『위대한 철학자들』, 미문출판사, 1984.
- 이영재, 『재미있는 중국철학 이야기』, 박우사, 1993(홍익CNC, 2013, 전자책).
- 장기균 저서, 송하경, 오종일 공역, 『중국철학사』, 일지사, 1989.
- 정병조 저서 『인도철학사상사』, 서림사, 서울, 2005.
- 토오도오 교순·시오이리료오도 저, 차차석 역, 『중국불교사』, 대원정사, 1992.
- B.러셀, 서상복 옮김, 『서양철학사(A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을유문화사, 2009.
- F.코플스톤, 『철학의 역사(A History of Philosophy)』, The Newmann Press Westminster, Maryland, 1960.
- H.J. 슈테리히, 『세계철학사(Geschichte der Philosophie)』, 분도출판사, 1981.
- J. 힐쉬베르거, 강성위 역, 『세계철학사(Geschichte der Philosophie)』, 이문출판사, 1987.

